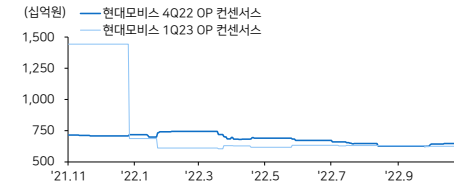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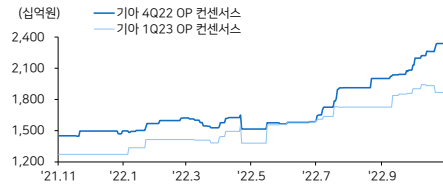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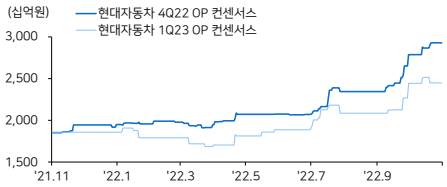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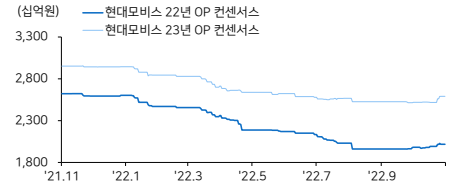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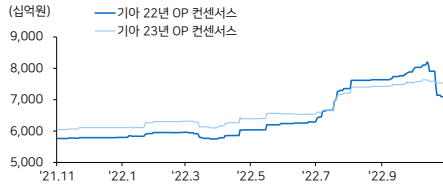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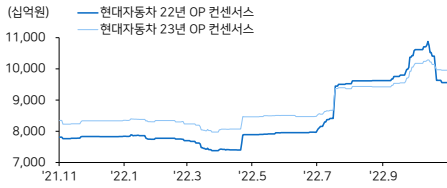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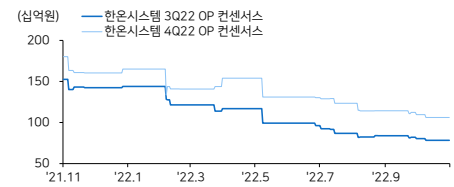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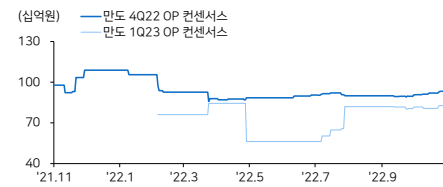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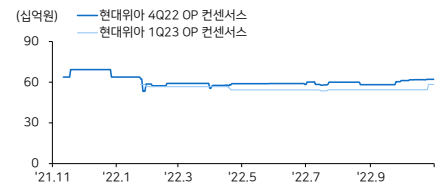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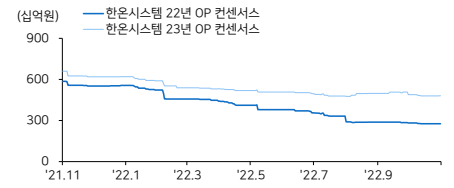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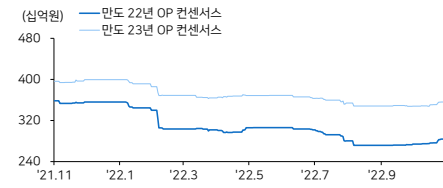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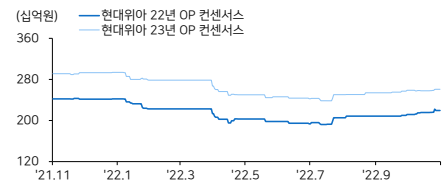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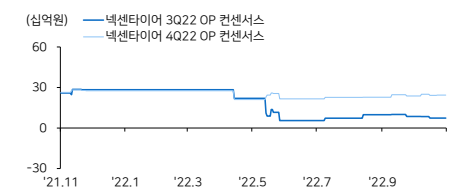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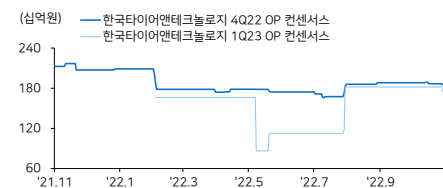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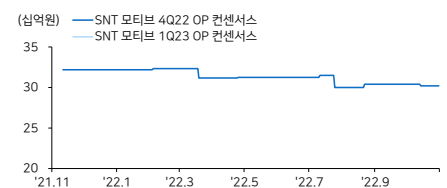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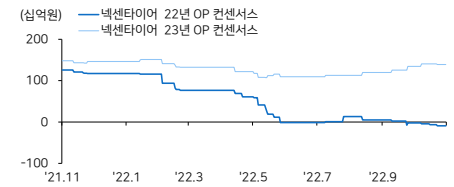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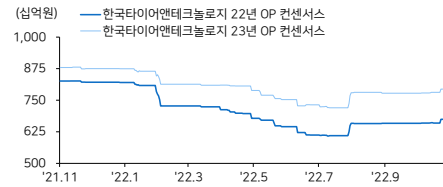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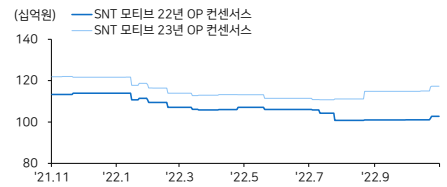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기아, 내년 CES 불참... "신기술 상용화 집중할듯" (동아일보)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1월 CES 2023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 글로벌 경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또한 기존 콘셉트나 개념을 뛰어넘는 전시 주제나 제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존재.  
<https://bit.ly/3Vg2M43>

### 2년새 원자재값 최대 1.67배... 내 차 가격 오른 이유 있었네 (머니투데이)

자동차 원자재의 가격이 지난 2년 사이 최대 1.6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자동차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글로벌 완성차업체가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 그나마 올해 3분기 일부 부품이세를 제외한 타 원자재 가격은 yoy 소폭 하락.  
<https://bit.ly/3Xg104W>

### Chinese regulators vow to crack down on price gouging as lithium prices rise to staggering levels (CNEV)

중국 리튬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리튬배터리 산업의 사재기/폭리/불공정경쟁을 조사하고 처벌할 계획을 발표. 최근 탄산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배터리 업체는 감산 계획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존재.  
<https://bit.ly/3UuWtYH>

### Volkswagen-SAIC venture to close manual transmission plant in China (Reuters)

VW와 SAIC의 합작사가 소유한 수동변속기 공장이 2023년 3월 폐쇄될 것이라고 발표. 해당 합작사의 수동변속기 차량생산량은 연간 50만대에서 5만대로 수준까지 떨어질 상황. VW는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  
<https://reut.rs/3i1mK17>

### 현대차·기아, 화재위험 韓·美에서 수백만대 리콜 (조선비즈)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수백만대의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리콜을 진행 중. 대상 차종과 규모가 워낙 커 해당 리콜이 '제 2의 세타2 엔진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https://bit.ly/3GAUcZJ>

### 중국패권 현대차...고? 스텔? 딜레마 (경향신문)

현대차그룹이 '중국 시장 딜레마'에 빠짐. 중국 사업 적자를 메꾸기 위해 계속적인 자금 수혈을 해야 하는 데다 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술을 한다는 의견. EV 생산업체들은 V2G 솔루션과 관련된 기능과 제품을 출시 중.  
<https://bit.ly/3Avo2LA>

### V2G charging crucial for EV adoption, report says (Automotive News)

V2G 충전 기술이 EV 선택 요인에 향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EV 충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에너지가 부족 는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견. EV 생산업체들은 V2G 솔루션과 관련된 기능과 제품을 출시 중.  
<https://bit.ly/3EKvnt4>

### Carvana cuts 8% of workforce on slowing used-car demand (Reuters)

미국 온라인 중고차 유통업체 Carvana는 중고차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원 약 1,500명(전체 인력의 8%) 감원을 발표. 또한 CEO는 높은 금리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  
<https://reut.rs/3hXwL2H>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